

할렐루야, 지난 한 해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의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제물이 넘쳐나는 축복된 추수감사절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11월 23일 (토) 제 1994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감사하라! 공동체와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더해졌고 사소한 축복에도 교회의 하나 됨을 표현할 기회

어린 시절부터 교회의 절기 행사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례행사는 추수감사절이었다. 내가 이때를 좋아하는 이유는 맛있는 파이(아이들이 테이블에 달려들어 몇 조각을 먹었는지 셀 수도 없는 맛있는 사과와 호박과 초콜렛 크림이 들어 있는)나 교회 벽난로에서 타오르는 신나는 불꽃 때문이 아니었다. 달달한 과자로 들떠 있는 친구들과 싸늘하고 컴컴한 뒤쪽 복도를 따라 뛰어다니는 기회를 얻은 것 때문도 아니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야 하는 학기 중인데도 잠자리에 들 시간을 늦춰준 약속 때문도 물론 아니었다.



나는 아보카도 색의 플라스틱 의자를 당겨서 피아노 주변에 반원으로 둘러앉아 목사님이 감사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누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물었든 그 순간을 좋아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올해에 새 직장을 주셔서 세금을 낼 수 있고 저의 재능을 사용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 말이다.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저는 올해에 항암치료가 잘 진행되어 증상에 차도가 보일 수 있게 되어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 그 후에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서 혹은 때로 자리에서 머뭇머뭇 이야기하곤 한다. 어린아이였지만, 나는 다른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특권을 귀중하게 여겼다. 해마다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 대한 감사, 목회자와 교사들에

대한 감사, 신체의 치유와 가족의 화해에 대한 감사, 죄를 이기게 하신에 대한 감사와 값없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표현을 들곤 했다. 이 기회를 기다려 임신이나 결혼 언약을 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항상 놀라는 순간들이 있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소천한 신실한 성도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늘 있었다. 그 행사가 끝날 때, 교인들은 의자를 제 위치로 돌려놓고 벽난로의 재를 긁어모아 불꽃을 끄곤 했다. 끈적끈적한 빵 부스러기 파이 접시를 가져다 놓았다. 코트 소매에서 병어리 장갑을 빼내고 뱃뺨한 부츠를 잡아당겼다. 서로 겨안았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추위 속으로 걸어 나갔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감사를 나눔으로 따뜻해졌다.

감사를 드리자
최근에 감사라는 주제는 인기를 얻고 있다. 감사는 베스트셀러의 주제이자 예쁜 밈의 대상이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정신 건강에서부터 더 나은 수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고 한다. 내 친구들은 대다수 개인적으로 감사 일기를 쓰고 있으며, 평생 크고 작게 받은 자비에 대한 감사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감사할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기쁘지만, 개인적인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감사의 중요한 차원을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본다. 내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것처럼 감사절 예배는 공동체의 일이 아닌가라는 점에 대해서 말이다. 감사절 행사는 단지 봉투에 봉인되어 수취인 하나님만 읽

을 수 있도록 감사카드를 보내는 차원의 일이 아니다. 감사절은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사이다. 감사는 귤속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게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시 66:5)라고 크게 외치는 것이다. 요즘 우리는 교회 예배에서, 가족 간의 식탁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대화에서 대중적으로 감사할 기회가 있다. 그런 기회가 되면 감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요청받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묻기도 할 것이다. 우리가 감사를 서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특권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4면으로 계속)

속제



임지영 시인 (얼바인 주교회 집사)

아득한 바다 끝 바라보며 어떤 마음 품고 항해를 떠났던가 검푸른 바다 죽음의 공포 이기는 한 조각 빵보다 간절한 영혼의 호흡이었나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살 소망 끊기고 의식 잃어갈 즈음 원주민의 도움, 공존의 길 열리고 함께 파종하고 더불어 추수하니 감사의 제사 드릴 수 밖에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올려 드릴까 황무지에 씨 뿌린 이해 못할 사랑 가시에 찔려가며 씀 없이 들보는 사랑 마침내 열매 맺는 신실한 사랑 받은 것이 많으니 돌려 드릴 수 밖에

계절은 돌고 돌아 언젠가 다시 앙상한 가지, 눈보라의 때가 이를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차가운 대지 위로 돌아날 새싹 바라며 온기 품고 기다리는 찬란한 빛 있기에

영원한 생명, 그리운 분향 꿈에서 깨어 도착한 곳에는 당신이 내게 준 사람들이 있다 만나의 기적, 한 해의 결실 감사하며 한바탕 벌이는 기쁨의 축제



시론 민경엽 목사

2면



감사절 특별설교 송정명 목사

4면



신양칼림 차용호 목사

8면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시편 교회배너 | 헌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액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Happy Thanksgiving
말씀의 신앙화 신앙의 생활화 생활의 문화화
Serving GOD First • Biblically Applied Life • Model for Enculturation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9:1)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SBM FOUNDATION sbmusa@hanmail.net
The International Headquarters of SBM
5531 Fullerton Ave. Buena Park, California 90621/ Phone : 562.810.9191
SBM 한국본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1, 아남타워 1820호
Phone : +82.2.564.3191 Fax: +82.2.564.6933

시론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회”



민경엽 목사 (나침반교회)

작년에 남경필 전 경기도 지사는 자신의 장남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의 아들은 마약 때문에 그 전에도 감옥을 들락거렸고 지금도 수감 중이다. 아들은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마약을 끊을 수 없기에 감옥이라는 최후적 수단을 통해 새사람이 되기를 소원했다. 그래서 남 지사의 가족들은 모두 이 아들을 감옥에 보내서라도 이 심각한 질병을 고쳐주자고 동의했다. 이전에 아들은 자주하기까지 하였으나 경찰과 재판부의 미온적 대처로 또다시 마약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지금도 그 아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신을 도와주려는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감옥에서나마 단약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마약은 사람을 통제되지 않는 괴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일단 걸려들면 다시 또 손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력으로는 도무지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마약이다.

고린도 교인들 중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며 먹는 사람들을 보며 시험이 들곤 했다. 결국 이 문제는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체가 죄 짓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들게 하는 것이라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 사역의 원칙을 밝혔다. 그는 사도였지만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고, 사역자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지만 자비량하였다.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듯이 자신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절제할 줄 알며 성숙한 사회 역시 그렇다.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더 양극화되어간다. 특히 정치에 대해 그렇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양보가 없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정치적으로 이해가 달라서 갈라지기도 한다. 정치를 보는 마음은 이래저래 불편하다. 정치인들의 말은 다 그럴듯하지만 결국 투표는 차악의 선택인 면이 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도덕적 하자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트럼프의 압승이었다. 이제는 싫어도 4년간 트럼프 시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얼마 전 진보 성

향의 워싱턴포스트에 보수 성향 평론가 마크 티센의 칼럼이 실렸다. 제목은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고, 당신의 대통령이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민주당의 적으로 악마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자의 과반 이상이 그를 선택하였고,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우리의 대통령이기에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야 한다고 하였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 전 상원의원도 역시 해리스를 공식 지지하여 파란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흥든 싫든 모든 미국인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런 처신이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제스처일 수 있지만 자기들의 생각을 절제해 나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상황과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절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친다. 이전의 탄핵 경험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임기가 태반이나 남은 한국의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까지 쥐고 흔드는 것에 위기감이 든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사회가 될 것인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minkyungyob@gmail.com

목회단상

지금 당장 대피하라



여병헌 목사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지난 10월 시속 160마일(약 시속 257km)의 강풍을 동반한 5등급 허리케인 밀턴이 다가오면서 미국 플로리다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탬파베이 지역은 허리케인 “밀턴”이 관통할 것을 예측하며 100년 만에 처음으로 대형 폭풍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했습니다.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기자 회견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금 당장 대피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피신한 사람들은 안전했지만, 경고를 무시하거나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 중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해주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망치는 길밖에 없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산상 피해는 다시 복구할 수도 있지만 생명은 죽으면 끝이 나고 그 후엔 돌이킬 수 없는 심판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임박한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유대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

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렘4:4~9)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평안한 시대에 무슨 심판이 임하느냐고 백성들을 미혹해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라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렘 8:18-9:1). 지진과 태풍과 전쟁과 테러와 다양한 질병과 가뭄과 굶주림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일상일 때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요즘을 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불병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5-14). 주님 곧 오십니다. 아니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오늘만이 믿고, 순종할 내 날이고 지금만이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을 외칠 기회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cefyeo@hanmail.net

교회 행사 | 각종 집회
부활절 성탄절 안수식
배너 & 현수막 맞춤형 주문 제작 업체
당일 제작 및 배송 | 무료 디자인 제공
influsign.com info@influsign.com

G2G MISSION CENTER (가족중심 자비량선교회. 미국비영리단체 등록)
< 감사 이훈구 장로 약력 >
* 자녀교육 및 결혼 가정세미나
* 감사나눔 세미나 및 간중설교
* 목회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 G2G Mission Center (G2G선교회) 설립 및 대표(2013.1 - 현재)
* 감사나눔 공동체 : 감사나눔리더(임원) (2023.8-현재)
* 저서: 크리스천 자녀교육, 결혼을 어떻게 시켰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세미나, 간중설교 문의 : g2gmission@hotmail.com

교회인쇄물 · 헌금봉투 · 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광고 문의
(323)665-0009 | (718)886-4400
info@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Candidacy Qualifica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5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Exam Subject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Miscellaneous Information
Exam Date and Place
Accompanying Documents
Submit To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권혁천 목사
서 기 : 김대업 목사
고시부부장 : 김요섭 목사
고시부서기 : 전동진 목사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무교절)과 맥추절(칠칠절) 그리고 수장절(초막절,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개신교 교회는 성탄절과 부활절, 추수 감사절을 주로 귀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추수감사절은 구약시대에 지키고 있던 수장절과 연관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숲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은 다음 그해 가을에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면서 감사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인되고 있는 절기입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 미국에서는 몇 차례의 날짜가 바뀌게 되어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려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한 해 동안 내려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조명해 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위대한 전도자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감사에 관해 귀한 교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행동강령이라고 알려진 말씀 가운데 내포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5:16-18). 그래서 그런지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감사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는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

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 2:6-7) 계속해서 그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명령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3:15)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3:16)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3:17) “기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4:2) 이런 감사의

서도 씨 부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옥토에 떨어진 씨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교훈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

년이 들어 공핍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절기에 내가 어디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깊이 살펴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상적인 쾌락이나 명예, 권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결과는 너무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변덕 부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의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면이 두드러집니다.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남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선교나 구제 섬김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 오히려 노년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내게 됩니다. 마음속에 감사하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나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원망이나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차원이 높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고난과 환란의 연속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도 갇히고 태장도 맞고 배가 파산 당하는 어려움도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름으로 인해 갈증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활동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 형편이 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도래했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합 3:17-18)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회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감사

골로새서 2:6-7



송정명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미주평안교회 원로목사)

삶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기분이나 감정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마음이 바뀌어져서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는 일이 많습니다. 식물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식물이 매마른 땅이나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몇 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말라 죽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다가 결국 잘림을 당하고 불쏘시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리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시 1:3) 시편 기자 닷은 첫 편의 말씀을 통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주고 있는데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시 1:3)라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가뭄이 오고 흥

하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시92:14) 역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양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궁전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나”(시 92:12-14)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의 삶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일거리를 찾지 못해 도박이나 장기, 바둑 같은 것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도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로 계속 뿌리를 내리며 사는 삶이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 할 수 있게 됩니다.(살전 5:18, 합 3:17-18)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여건(all circumstances)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p>·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E-mail : nyk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 EASTER,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알림

다음 신문은(11월 30일 자) 본지 추수감사절 정기휴간으로 인해 휴간하오니 이점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호 기사는 인터넷 신문에 실시간 게재 됩니다.
www.chpress.net

THE NANOOM HOUSE

2024. 12. 8(Sun) 5 PM

더나눔하우스 후원 감사의 밤에 초대합니다.

KCS HALL
203-05 32 Ave., Bayside, NY 11361

문의: 718-683-8884 참석 여부를 12/1 까지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카톡 아이디: sungwonpark1212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생각이 바뀌면 삶이 변화됩니다

디지털 시대의 현대인들은 몇 번의 마우스 클릭만으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독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유튜브같은 SNS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집중력과 사고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 "생각이 모든 것의 열쇠이다"라고 말했듯이 생각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판단력과 통찰력을 잃기 쉽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에 매몰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버트 솔러 박사는 "불가능한 일은 없고, 불가능한 생각만 있다"고 했고 스킵스랜드 작가 새뮤얼스마일스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

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고 하며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긍정적인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 습관뿐 아니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변화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첫째, 잠시 스마트폰을 끄고 산책해 보세요. "산책이 사색의 마중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철학자 괴테, 헤겔, 하이데거의 사

례는 산책이 사색에 주는 영향을 잘 보여 줍니다. 조용히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마음속에 묻어 두었던 생각이 떠오르며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될 것입니다. 조용히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생각이 떠오르며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책을 가까이 하세요. 독서를 통해 우리는 작가의 삶과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느끼고 배우면서 사고력과 이해력이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독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세요.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이 변화되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디지털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의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진서 34

김경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은퇴목사)



두 팔을 높이 들라

오늘날 카톡이나 텍스트를 통해 많은 성도들과 지인들이 소식을 나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얻은 정보가 뉴스를 서로 이야기해주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유튜브의 신기한 글을 보내주었다. 내용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렸을 때 두 팔을 높이 들라는 것이다. 그러면

생선 가시가 빠져나온다는 것이고 젤리나 찹쌀떡 같은 것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 역시 두 손을 높이 들면 해결이 된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오른 발이면 왼 팔을 들고 왼 발이면 오른 팔을 들 때 쥐가 풀린다고 한다. 또 다

른 이야기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가슴이 조여오고 아파올 때 차를 세우고 양팔을 높이 들라는 것이다. 그러면 일단 숨을 쉬게 되고 후속 조치로 병원에 빨리 가라는 이야기였다. True or Not true?



솔직히 나는 그런 경우를 당해보지 못해서 그게 확실한지, 정말 두 손을 들면 그렇게 해결이 되는지 나는 모른다. 누군가 전해준 글을 읽는 내내 나는 기도의 두 팔을 생각해

다. 내게 가장 힘든 시간 목이 확박 막힐 정도의 어려움,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생의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두 팔을 들어야 한다. 두 팔을 높이 들어야 한다. 누

구에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 신앙의 사람은 기도의 팔을 들었다. 모세도 에스라도.....

revpeterk@hotmail.com

감사하라! 공동체와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1면에서 계속)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속 사회에서 감사절은 종교를 초월한 축일이거나 심지어는 종교를 기반으로 선택된 공휴일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감사가 단지 마음으로부터 가득하게 간직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진정한 감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모두 다 내려 주시는(약 1:17)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다. 감사는 특별히 함께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시편 136편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1-3절)

시편 136편은 공동체적 감사를 촉구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초대한다. 승리한 스포츠 팀의 팬이나 승리한 정치 후보의 지지자처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듣고 기뻐하라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듣게 하고 그들도 그리하게 하면 우리 마음은 서로 감사로 고무된다. 다른 시편에 나온 다윗의 감사 시를 보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 하리이다 /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시 34:1-3)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른 이들이 "듣고 기뻐하게" 하면 그들이 함께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격려한다. 가족이 함께 감사절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은 서로 감사로 고무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 혼자서는 감사하기가 쉽

지 않지만, 공개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길로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다른 이들의 공개적인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상기하도록 도와준다.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사드리는 것은 크리스천의 연합을 격려한다. 교회의 감사절 예배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는 새 가정이 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더해졌고 사소한 축복에도 교

회의 하나 뭉을 표현할 기회가 되었다. 바울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고전 12:26)고 말한다.

교회가 종종 시기와 갈등으로 좁막혔을 때, 공개적 연합 감사절 행사는 다른 이들로 인한 기쁨을 누릴 기회가 되며, 주님의 친절하심에 그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며, 한 교인에게 주신 복이 교회 전체의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함께 감사하자.

by Megan Hill, TGC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891, www.thankingchurch.org</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예배: 오전 11:30(월-금)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23) 313-4498, www.nac.org</p>	<p>남가주든단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714) 446-6202, www.dundun.org</p>	<p>남가주사랑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주일 4부(말씀이 예배): 오후 2:00 영어권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p>	<p>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kpc.org</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310) 380-9377, 9079</p>	<p>미주명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ja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 894-6214</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회중: 오전 9:00, 11:00 일일예배: 오후 1:15(수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9:00, 11:00 Tel: (949) 854-4010, www.bethelchc.org</p>	<p>세계사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 235-7981</p>	<p>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매일 마지막 금요일 오후 7:00 세례예배: 오전 6:00(월-토) Tel: (310) 388-1927, www.wmcc.org</p>
<p>살비지 사랑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오 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p>	<p>엘피스지역원 원장: 박순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합동목사) 성당사역: (월-금) 오전 10시 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역원 3. 가정사역자 4. 네트워크 사역 사역: 1. 복음화 2. 가정사역자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Tel: (213) 700-9828, www.elpisfamily.org</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일일예배: 오후 1:15(수일예배): 오전 10:00 말씀예배: 오후 7:30(매일) Tel: (714) 446-6202, www.enhyehanchurch.org</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388-1927, www.wmcc.org</p>
<p>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성인/청년): 오전 11:45 송-금요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예배: 오전 6:00(토) Tel: (714) 464-9259, www.socalsamsungchurc.org</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송-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com</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교)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 M 청년예배: 오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joeun.org</p>	<p>평강교회 담임목사: 송금관 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교과: 오후 1:00 TEE-용모예배: 오후 9:30 화요일 3:30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을 읽는(금):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3-9136, pyonggangch@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net</p>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모두의 예상을 초월한 2024년의 역사적인 대선 결과 분석 (상)

2024년의 대선 결과는 누가 봐도 참으로 놀라운 역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적과 같은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축재와 감사의 날이었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인정하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AP가 발표한 2024년 대선 결과는 백악관 당선에 필요한 270개의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공화당 트럼프가 해리스를 312 대 226으로 승리했음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인기(Popular vote) 투표에서도 전국적으로 50%를 얻음으로 해리스가 얻은 48.3%를 앞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4년 대선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뿐 아니라, 상원(Senate)도 53:47, 하원도 218:212, 주지사도 27:23으로 수십 년 만에 "Red Wave"가 일어났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이런 대선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AP 통신은 "2024년 대선은 역사적인 수준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공화당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오랜 정치적 통념과도 모순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적고 있는데, AP 외에도 여러 리포트를 통한 분석을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해리스의 캠페인은 미국 전체 3,000개 카운티 중, 총 720개 카운티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 이는 2020년 선거보다 200개 이상의 카운티가 증가한 수치인데, 증가한 카운티들의 대다수가 트럼프의 편에 섰습니다.

가장 큰 편으로 상승한 곳은 트럼프라가 승리한 텍사스 러빙 카운티(Loving County)로 투표율이 47% 상승했습니다.

올해 11월 15일 기준으로 1억 4,900만 개 이상의 투표용지가 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대선보다 약 700만 표가 적은 수치이지만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했던 것입니다.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투표 총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대선의 전체 투표율은 감소했지만, 트럼프라가 뒤집은 주들(States)에서는 투표 총계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네바다,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이다. 애리조나주는 트럼프라가 약 23만 4,000표 감소한 유일한 주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절대로 투표를 하지 않는 Amish (아미쉬)들이 "전례

없는"유권자 등록"을 했다고 여러 언론이 리포트 했습니다.

아미쉬 들은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악화 되어가는 경제 상황과 성경적 신앙을 무너뜨리는 현 정부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의 깊은 우려는 결국 그들이 평생 지키던 아미쉬 전통까지도 깨고 투표를 결심한 큰 이유였습니다.

예상 못 했던 수많은 처음 투표한 유권자들 -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에 깊은 우려를 품고있으며, 공립학교의 비윤리적이고 공산화 세뇌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뿐 아니라, 정부가 학부모들을 배제 시키고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조용한 시민들(Silent majorities)" 이 유권자 등록을 새로하고 투표를 한 시민들(first time voters)이 예상치 못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선거 당일, 주류언론들의 시청률이 대대적으로 떨어지다!

주류언론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각기 신뢰하는 미디어들을 통해 정보를 얻는 시민들의 투표참여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자료들입니다.

폭스뉴스(Fox News)는 2024년 선거 당일 주류언론중에서는 총 13.4 million 인 최고의 시청률을 끌어모았지만, 2020년에 비해 오후 8-11시 사이에 총시청자 수가 -24%, 데모시청자 수는 -37% 감소했는데, 폭스뉴스는 보수언론으로 알려져 있다가 회장이 바뀌면서 2020년 이후 보수시청자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ABC뉴스가 폭스뉴스 다음인 총 8.2million 로 가장 많이 시청한 뉴스였는데, 2020년에 비해 총시청자 수는 -3% 감소했지만, 데모시청자 수는 +1%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뉴스로 알려진 ABC지만, 이번 대선 때, 가장 진보 언론으로 알려진 CNN을 제치고 ABC가 더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MSNBC는 같은 시간대에 7.8 millions 로 2020년 대비, 각각 20%와 -31%의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CNN은 선거당일 가장 큰 손해를 본 가장 진보 방송사로, 같은 프라임 시간대에 2020년에 비해 총시청자 수는 -44%, 데모시청자 수는 -50% 급감했고, 2016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62%와 -67%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감소한 만큼의 사람들이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CNN에서 매우 오랜만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수십 년 만에 RED Wave가 일어난 큰 이유들: 18세에서 29세의 젊은이들이 20년만에, 흑인들은 42년만에 히스패닉은 52년만에 처음으로 트럼프라 공화당을 지지했다며, 트럼프라 수십년 만에 최고의 공화당 숫자를 확보해줬다고 보고했습니다.



트럼프라 이긴 주들의 공통점:

트럼프라는 모든 7개의 Swing States 주에서 넉넉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네바다 주들입니다. 네바다와 펜실베이니아를 제외한 나머지 5주들은 Photo ID 가 꼭 있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 주들이며 나머지 24 주들 역시 Photo ID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는 주들입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 주들의 흥미로운 공통점:

카말라 해리스가 이긴 총 19개 주는, 로드아일랜드와 뉴햄프셔 두 주만 빼고 나머지 13주 들은 NO Photo ID 주들이라서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의 그 어떤 ID 도 요청하지 않도록 이미 법이 통과된 캘리포니아, 뉴욕과 같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콜로라도, 버지니아, 델라웨어, 코네티컷 4주에만 NO Picture ID지만, 집 주소와 이름이 적힌 것이 ID로 사용될 수 있는 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결과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이유는 그동안 투표율 미루던 크리스천들과 학부모, 조부모들이 미국 안에서 계속 무너져내리는 성경적 가치관이 미국 안에 회복되고, 트랜스젠더와 공산주의 사상세뇌 교육으로부터 자녀들을 지킬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서 투표하고 기도한 것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과 내용 들과 트럼프라 대통령의 공식 계획들 발표내용은 TVNEXT.org 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0316@gmail.com

Q: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교회 집사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식년을 가진 후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투었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가 잘하고 잘못 주장을 했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 셀비치 최집사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A: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충돌로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는 주장입니다.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 13:13절에 잘 나옵니다. 그는 제1차 선교여행에서 전도 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나 중간 대열에서 이탈하여 여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불상사를 일으킨 부장집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간증보고를 할 때 그는 심히 후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선교여행 때에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다고 다시 도전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개역성경은 마가 요한을 바나바의 생질(조카)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골4:10) "헬라어 아넵시오스"라는 말은 사촌(Cousin)이지 조카(nephew)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F.F. Bruce나 렌스키나 NIV 성경도 역시 사촌(Mark, the cousin of Barnabas)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의 과거를 보아서 철없는 그를 다시 데리고 갔다가는 영적전쟁같은 전도여행 중에 어려움만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주장합니다. 바울은 정명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데려가자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철저한 목표중심의 인물이라면 바나바는 굉장히 사람을 중요시하는 인물입니다. 목표와 과제의 달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 한 것입니다. 그가 철없고 엉뚱한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어서 좋은 일꾼으로 다시 키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까? 두 사람 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저자인 누가는 공평한 입장에서 일체의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결코 개인의 감정이나 이권 때문에 다툰 것도 아니고 바나바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두 사도의 성격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철학의 차이가 이런 문제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명한 신약신학자인 F.F. Bruce는 "이 때 서로 갈라선 것은 슬픈 일임에는 틀림없다. 마가가 바나바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바울이 후에 마가를 인정하였고 (골 4:10, 몬 1:24, 딤후 4:11)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충절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의 전도단을 2개의 전도단으로 만드시어 전도하게 하였다"고 평하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바울은 바나바를 동역자 바나바로 소개하고 있고 (고전 6:9, 갈 2:1,9,13, 골 4:10) 잊지 못할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일시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후에는 베드로의 조수가 되어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었고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그는 베드로에 의해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행전 5:13)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25년 봄학기 신, 편입생 학생모집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F-1 Visa (SEVISI-20) 또는 J-1 Visa (DS-2019)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Online 혹은 집중강의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자세한 사항은 web site 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문의 : 전화 (636) 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Tel : (636) 327 - 4645 / E-mail : usa@midwest.edu

목회와 선교

여승훈 목사
(남가주배로교회)



“문학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복음”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은 현대 문학에서 고통과 상처를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작가로 유명하다. 특히 그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는 인간 내면의 갈등과 소외감을 생생하게 그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러한 문학의 한계는 고통을 묘사하는데 그친다. 반면에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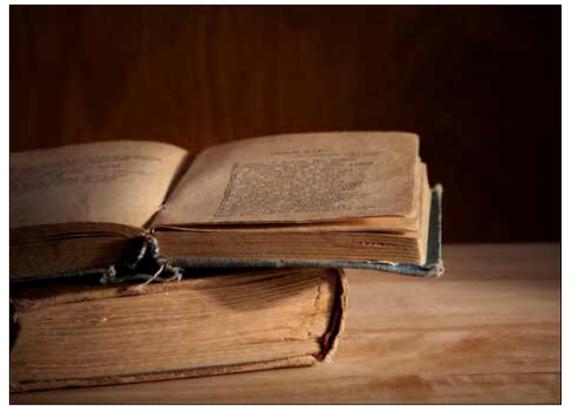
리스도의 복음은 그 고통을 치유하고 소망을 제공한다. 한강의 작품에서 고통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으로 묘사된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은 내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 자아의 분열과 고립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잘 묘사해 준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고통

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고통이 치유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단순한 위로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영적인 평안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간

의 심리적 고통과 불안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내적 평안을 제공한다.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고통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 궁극적인 치유가 되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강의 작품 속 인물들은 고립되고 불완전한 존재로 묘사된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고립 속에서 갈등한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공허함과 정체성 상실과 같은 실존적 위기를 잘 반영해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존재의 목적이 그분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다.

한강의 문학은 고통을 세밀히 묘사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고통의 원인을 사람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찾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한 사건이며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온 세상에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다. 이로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박되어 고통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끝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향한 여정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독과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진정한 소망과 평화를 제시한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는 깊은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며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한강의 작품을 통해 고통을 마추는 사람들이 고통에 대한 공감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 고통의 근본적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기를 바란다.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트럼프 2기, 기독교 귀환? 미 오글라호마주, 공립학교서 사용할 성경 주문

‘트럼프 집권 2기’ 시대를 앞두고 미국에서 기독교 가치를 표방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강한 ‘바이블 벨트’에 속하는 오글라호마주가 공립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한 500권 이상의 성경을 구매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학술·문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성경을 구매한 첫 번째 사례다. 대선 유세 내내 교육부 폐지, 성소수자 관련 교육 등 진보진영의 정책을 없애겠다고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화의 고삐를 바짝 쥘 것으로 보인다.



19일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글라호마주는 주 내에 있는 모든 교실에 성경을 배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라이언 윌터스 오글라호마주 교육감이 주 정부 교육부 이사회에서 ‘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성경을 비치하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표한 지 5개월여 만에 성경 배포가 본격화된 것이다.

학교에 배포될 성경 구매는 미국 독립선언서, 미국 헌법 및 권리장전 문서가 포함된 5만 5000권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구매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윌터스 교육감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오글라호마주 학생들이 미국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주의 모든 교실에 성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헌법, 독립 선언서, 권리장전을 갖고 있다. 이것들은 우리나라 역사의 기초가 되는 문서”라며 “우리 아이들은 성경이 미국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경 배포는 오글라호마주의 교육적 변화의 일부다. 이달 초 오글라호마주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종교적 관행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적 자유와 애국심 사무소’를 출범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모든 측면에서 자유롭게 종교를 실천할 수 있으며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침해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지침은 오글라호마주 공립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도 기도할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윌터스 교육감은 “공립학교에서 신앙과 가족 가치관이 해체되는 것이 학업 성취도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해 학업 성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교육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글라호마주뿐 아니라 바이블 벨트에 묶여

있는 또 다른 주에서도 성경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제도 시행이 잇따르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는 지난 5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 게시하는 법을 제정했다(국민일보 6월 21일자 33면 참조). 앞서 4월에는 플로리다주 교육부가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교목이 학생들을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전격 허용했다. 텍사스의 경우 2023년 공립학교에 교목을 두도록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軍동원설... 트럼프 “사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취임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스 설에서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터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륜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터는 지난 8일 기사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 이민자 유입)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 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취임 100일 안에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은 각종 행정명령 등을 동원해 이민 단체의 법적 소송을 우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예산을 전용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도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 장벽 건설에 의회가 승인한 것보다 많은 예산을 지출한 바 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스티븐 밀러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인수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게 인수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뉴델리 ‘최악’ 대기질에 몸살... “가스실이나 마찬가지로”

인도 수도 뉴델리가 매년 수천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스위스 공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어(IQAIR)

가 18일(현지시간) 오전 측정된 뉴델리의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907 µg/m³으로 치솟아 올해 들어 최악을 기록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뉴델리 한 관측소에서는 PM2.5 수준이 980 µg/m³을 기록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 15µg/m³의 65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델리 당국은 10~12학년생을 제외한 학생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또 비필수 트럭의 시내 진입을 막고 건설 작업도 중단시켰다. 어린이, 노인, 만성질환자에게는 가급적 실내에 머물도록 권고했다.

뉴델리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산자이 고엘은 AP통신에 “많은 사람이 인후염을 앓고 있다”며 “그들(당국)은 농작물 쓰레기 소각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종말이 다가온 것 같다” “가스실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뉴델리 대기는 보통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까지 오염된 공기로 뒤덮인다. 농작물 추수 잔여물 및 도심 쓰레기 소각, 자동차·공장 매연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AFP는 인도 정부가 매년 수천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전세계 1위 브라우저 ‘크롬’ 잃을 위기... 구글의 운명은

구글이 전세계 브라우저 시장의 약 66%를 차지하는 웹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할 위기에 처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구글



과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 크롬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 해소를 위해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크롬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구글에 작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웹트래픽 분석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은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달한다. 3명 중 2명이 크롬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아이폰의 사파리(18%)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엣지(5%)를 크게 능가하는 수준이다.

크롬은 구글 검색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전 세계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9%에 달하는데, 대부분의 인터넷 검색은 크롬을 통해 이뤄진다. 크롬이 구글 검색을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하는 주요 통로인 셈이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구글 검색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검색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사실상 끊어지게 된다. 이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검색 시장은 오픈 인공지능(AD)이 최근 챗GPT 검색을 내놓고, MS의 Bing이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크롬 매각은 구

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구글은 검색 서비스를 통한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사업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 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억5000만달러였다. 전체 매출의 70%가 광고 매출이다. 지난 1, 2분기에도 각각 646억 달러, 616억 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 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다만 이 방안이 확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반독점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준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hta 판사가 법무부의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 구글은 항소를 추진 중이어서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된 것도 변수다.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기했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 정부에서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美 뉴욕서 ‘무차별 칼부림’에 2명 사망·1명 중태

미국 뉴욕 도심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고 뉴욕 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뉴욕 경찰은 51세



남성이 이날 아침 몇 시간 동안 맨해튼 곳곳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오전 8시30분 직전 웨스트 19번가와 8번 애비뉴 근처에서 아무 경고 없이 36세 건설 노동자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건설 노동자는 맨해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약 두 시간 뒤에는 이스트 30번가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드라이브’ 고속도로 인근 강에서 낚시를 하던 68세 남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이 피해자 역시 같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세 번째 공격은 약 30분 뒤 맨해튼 근처인 42번가와 퍼스트 애비뉴에서 발생했다. 36세 여성이 여러 차례 칼에 찔려 뉴욕 프레스비테리언-와일 코넬 메디컬 센터로 이송됐다. 상태는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세 번째 공격 직후 택시 기사 신고로 체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범행 장면을 본 택시 기사는 강도 사건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용의자는 범행 현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다. 남성은 체포 당시 피로 얼룩진 칼 두 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옷도 피로 얼룩져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언론에 설명했다. 경찰은 그를 노숙자로 보고 있다. 과거 여덟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10월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해럴드 에머슨 뉴욕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그가 왜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용의자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머슨 시장은 “오늘 3명의 무고한 뉴욕어가 끔찍한 공격의 피해자가 됐다”며 “(이 사건은) 뉴욕 시민을 계속 해서 실망시키는 행사사범 시스템과 정신건강 시스템의 명백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개혁신의 윤리학(5)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원로)

바울의 새 관점 (The New Perspective on Paul) (2)

“바울의 새로운 관점”의 주장에 의하면, 최초의 칭의(initial justification)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언약적 지위(covenant status)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의 칭의(final justification)는 비록 성령의 능력에 의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부분적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다 (final justification is partially by works, albeit works produced by the Spirit). 결국 그들은 칭의와 성화를 하나의 칭의 교리 안에 통합시키고 행위 구원을 포함시켰다.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라이트의 주장은 반(반) 펠라기우스주의(semi-Pelagianism)와 일맥상통한다.

전통적인 칭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 3:24; 5:18). 성경적인 칭의 교리는 믿음으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들에게 전가되어,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방편 혹은 도구이기 때문에 공로가 될 수 없다.(faith as an instrument) 성경적인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스도의 공로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새 관점이 주장하는 미래의 칭의(future justification by works for believers in Jesus Christ), 혹은 유보적 칭의는 칭의의 단회성과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칭의는 단회에 그리고 완전하게 (once for all) 얻는 의미이다. 이것은 법적인 개념이다. 히브리서 10:10, 14,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완료분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완료시제).” 성경적인 칭의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칭의이다. 법적이며, 선언적이다.

새 관점이 행위를 칭의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교리적 잘못이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를

위하여 순종과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러나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를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선행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이며 칭의의 열매이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B. 율법폐기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Antinomianism)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관해 두 극단적인 입장이 있다. 하나는 율법주의이며 다른 하나는 율법폐기주의 혹은 반율법주의(Antinomianism)이다. 율법폐기주의(반율법주의)는 영어로 antinomianism인데, 이것은 헬라어 ἀντί (반대)와 νόμος (법)의 합성어이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십계명)을 가리킨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은 ‘율법의 세 번째 역할’과 관련이 있다.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두 번째 역할’은 사회의 불법을 억제하는 것이다 (to restrain lawlessness in society).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역할’ (The ‘third use’ of the law)은 신자의 삶의 규범의 역할이다. 루터는 율법의 제3의 역할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칼빈은 율법(도덕율)이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 되어 성화의 방편이 된다고 주장한다.

청교도 사무엘 볼튼(Samuel Bolton)은 그의 저서 <기독교 자유의 참된 경계> (The True Bounds of Christian Freedom)에서, “율법은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복음으로 보낸다(칭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정하기 위해 우리를 율법으로 보냅니다(성화)” (“The law sends us to the gospel for our justification; the gospel sends us to the law to frame our way of life”) 라고 했다. 볼튼은 율법의 역할에 대하여 매우 잘 정리하였다.

그러나 율법폐기론자들은 도덕법(십계명)은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다음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해서 신자들은 율법(도덕율)과 관계 없음을 주

장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17);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롬 6:14);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 5:17). 이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잘못 이해하였다.

그리고 새 언약 신학 New Covenant Theology)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신자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며, “율법과의 관계는 끝났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법



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 언약 신학파들은 신약 성경의 연속성(continuity)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다.

존 머리(John Murray)는 “율법 폐기주의는 도덕법의 영속적인 권위와 신성함을 부인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중심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의 진실성과 권위에 대한 타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지금부터 율법폐기주의자들이 잘못 해석한 성경구절들을 비판하겠다.

(예레미야 31:31-34의 새 언약)

렘 31:33,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예레미야가 언급한 “내 법”은 무슨 법인가? 도덕법(십계명)인가? 아니면 다른 법인가?

이 본문은 “새 언약 신학”(New Covenant Theology)에서 많이 언급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고 더 영적인 새 법이 나왔다. 이것은 바울이 고전 9:21과 갈 6:2에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법”(the law of Christ)이다.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하는 “마음을 새긴 법”은 모세의 율법과 같지 않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법은 마음에 기록된 법이다. 결과적으로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은 새 언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규범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옛 언약의 시대에 속했기 때문에 새 언약 시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리처드 바르셀로스(Richard C Barcellos)는 그의 책 <십계명을 변증함: 새 언약 신학을 비판함> (In Defense of the Decalogue: A Critique of New Covenant Theology)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 언약 아래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은

이 된다. 딤펬전 1:8,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리고 딤펬전 1:9-10은 십계명을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다. 도덕법(십계명)은 제한된 역사적 시기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인류를 위한 기본적인 규범이 되는 법이다. (Patrick Fairbairn, 1&2 Timothy and Titus, Geneva Commentaries)

(마태복음 5장: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심)

마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말한다. 이 구절을 근거로 율법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입장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율법이 무효라고 선언하셨다고 주장한다.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과 관계가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다 성취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은 과거의 일이며, 십계명과 신약의 성도들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율법폐기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뜻을 잘못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구분한다.

의식법은 이스라엘의 예배(제사)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구약의 의식법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식법이 다 성취되었다.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시민법은 신정정치로서 이스라엘에 주어졌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어,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종과 민족의 차별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더 이상 신정국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시민법은 그 정신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지만 시민법 자체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덕법(십계명)은 모든 시대를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한 규범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요약이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 사이에는 구별은 없다. 이 둘은 동일한 것이다. 이 법은 불변하고 영존한다.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다가올 시대까지 권위가 변함없이 계속된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영원한 삶의 규범이 된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KHL0206@gmail.com

Advertisement for 'Worldwide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various churches in New York, New Jersey, and Hawaii.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ddresses, and service times for numerous congregations such as New York Baptist Church, New York Presbyterian Church, and Hawaii Baptist Church.

신앙칼럼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최고의 감사(The Best Gratitude in the Worst of Times)

마쓰미 토요토미 작가가 쓴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에서 사랑은 만약(if)의 사랑이 있고, 때문에(because)의 사랑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의 세 가지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랑과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똑같이 세 가지 차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if)이라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더 잘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남들보다 돈을 더 벌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성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어린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만약(if)의 감사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because)의 감사입니다.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사를 주로 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아프리카에서 바짝 마르고 굶어 죽어 가는 아이들 영상이 나오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돕자는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안 되었다고 느끼며 종종 "나는 저렇게 못 먹어서 굶어 죽어가는 저런 사람들 갈지 않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해야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감사를 합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경우 전쟁으로 얼마나 힘들습니까? 저들은 전쟁으로 몇 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처지의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최고 수준의 감사는 아닙니다.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행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의 감사하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약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만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최고 수준의 감사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안 생기거나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불행해집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경우는 만약(if)의 조건부 감사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해주셔서 감사하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한 차원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비록 힘들고 불행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살지 않으면 그렇게 불행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믿는 것이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조금만 들여다 보아도 감사할 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또 우리 몸속의 피는 하루에 약 1억 6천만 마일 이상을 달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볍게 숨을 쉬는데 하루에 숨을 쉬는 횟수가 무려 2만 3천 번 정도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심장이 하루에 2만 3천 번 뛰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피가 하루에 약 1억 6천만 마일을 흐르니까? 결코 아닙니다. 폐도 멈추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호흡을 계속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약간의 문제만 생겨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 같아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어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심장이 뛰는 것만으로도 폐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할 이유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래도 지금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진광 작가가 쓴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서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루에 심플 이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면 심플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8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차용호 목사 (센터빌 한인장로교회)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게 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냉창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치고 있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75%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있는 작은 통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세계 상위 8%의 사람들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당신의 두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고 지금 혼자자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감사할 게 없다면 참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자 시절의 초기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아들람이라는 동굴 속에 숨어 지냈는데 그때 지은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시 서두에 달린 부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비를 피해서 동굴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피해 굴에 숨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다윗의 감사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사르고 그 감사를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hayongho@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35) 언제 맡겨 놓으셨나요?

한 남자가 참석하셨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 아내가 먼저 세상 떠난 후로 힘들어하자 자녀들의 권유로 재혼의 기회가 좀 더 있을 이곳 대도시로 이주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모임을 소개하신 분과 또 본인도 직접 이야기 나누어 보니 성실하게 사신 분 같았습니다. 그분의 첫 질문은, '재혼할 대상을 찾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였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모임은 아니지만 매달 있는 정기모임과 한 해 두세 번 있는 수양회에 참석하다 보면 각 사람들의 대인관계며 성품을 알게 되고 혹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면 건강한 커플이 될 확률이 높을 것이니 여유를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두어 번 참석 후 어떤 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겠냐고 연이어서 문자와 전화를 하셨는데 운전 중에 전화가 올 때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언제 맡겨놓으셨나요?'라고 되묻고 싶어졌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삶에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며 사랑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가 가까웠던 분들은 서로 간에 하나되지 못할 때 많이 힘들 수 있다는 것에 상상을 못하고 그저 내가 잘해주면 무난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요사이의 법적인 혼인과정없이 동거 형식을 취하는 커플이 많아진지 재혼의 실패율이 80-90%라고 합니다. 또한 각자의 스타일로 굳어져 있는 늦은 나이인 만큼 서로 맞추며 살려는 것은 모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모임에서는 건강한 홀로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성공적인 재혼의 전제조건이 무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 성경말씀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요 7:37, 38) 여기서 '목이 마르다'는 인간의 절실한 갈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혼자된 분들의 외로움에 의한 갈증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나가 마음을 털어놓아라.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나를 품을 수 있게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상상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지요. 유리컵에 물이 반 정도 있는 상태를 누군가가 나머지 반, 곧 나의 부족을 채워주길 바라는 그림으로 해석한다면 물이 가득 찬 컵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더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야 사랑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다름을 감할 수 있는 겁니다. 곧 나의 필요를 위해 파트너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가질 때 지속적이고 건강한 만남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고전 7:8-9)라는 바울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부모인도자께서는 이혼이나 사별 후 재혼을 원하는 참가자들에게,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해서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고백이 있을 후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Heade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Grid of church listings including: 갈보리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말씀한인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알칸사 제자들교회, 앵커리지델리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큰 은혜의 문을 여는 감사”

감사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기피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본성에는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또 다른 대상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살기 바라는 성숙한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생활 문화는 <덴큐>라는 단어가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회들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감사를 해야 할 타이밍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면 수준을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감사의 표시는 성숙한 인격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표

현은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좋은 줄 알지만, 감사를 잘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알지만 살다가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는 심정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알게 됩니다. ‘교인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 힘이 들겠구나’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 생활의 지혜를 전해 줍니다. 감사 생활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감사 생활의 축복성을 증언합니다.

흔히 감사하면 스스로가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데 사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면 축복의 문들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감사로 제사하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크고 작은 축복의 문들이 열립니다.

놀라운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감사는 은혜와 평안과 화목과 축복의 문을 여는 확실한 열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겨운 형편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위대한 믿음을 제시합니다. 한 해 수고를 하였지만, 열매가 전무한 실패의 모습 속에서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갈망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

인간관계 속에서도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면 닫혀진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해석하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노래하면 환경이 풀리게 됩니다.

저는 잊기 어려운 교우님이 있습니다. 제게 값비싼 안경을 선물 해 주신 권사님이십니다. 그 안경을 쓸 때마다 그 권사님과 그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가정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늘 아쉬움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고개를 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달을 보내며 며칠 전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 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 안경을 꺼내 쓰면서 평안의 문이 열리는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은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나 주어진 자

기 운명의 실존에 대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것도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년 삼차 특별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각자가 올려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cyd777@hotmail.com



이태훈 담임목사(뒷줄 가운데)가 임직예배를 마치고 이날 취임한 박문옥, 오창현 장로, 그리고 시무중인 장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왼쪽부터 황원찬, 박문옥, 오창현, 김점태 장로

밸리주하나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취임식

밸리주하나교회(이태훈 목사)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11월 10일 오후 창립20주년 감사

예배 및 장로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장로로 취임한 이는 박문옥 장로와 오창현 장로로 이미

시무중인 김점태 장로, 황원찬 장로에 이어 밸리주하나교회의 시무장으로 세움 받았다. 창립20주년 감사예배는 이태훈 목사의 사회와 성림교회 배종완 목사의 기도, 미 서남부지방 남감식 감리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되었고 기감 미주연회 서남부지방회 소속의 목회자들, 그리고 밸리교회협의회 회원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취임한 두명의 장로들은 이태훈 담임목사 앞에서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담임목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성도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겠다”고 서약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CMF 선교원의 제5차 키즈 셀레브레이션 참가학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제5차 CMF Kids Celebration 성황리에 열리다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주최한 어린이 전도집회 키즈 셀레브레이션이 지난 10일(주일)부터 이틀 동안 오랜 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김종규 목사)에서 100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

최된 이번 집회의 주강사인 탁영준 선교사(예루)는 “성경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라”고 어린이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니 콘서트, 게임, 바이블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에게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제공한 이번 어린이 집회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며 김종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집회를 준비하며 CMF선교원은 40일 간의 체인 금식 기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부모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며, 봉사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도록 준비해 왔다.

(정리: 박준호 기자)



제32회 BruinMUN 대회에서 수상한 한미연합회 학생들

한미연합회 모의유엔 학생들

UCLA 대학 모의유엔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거둬

한미연합회(KAC, 대표 유니스 송) 모의유엔(Model United Nations, 이하 “MUN”) 학생들이 지난 11월 9일과 10일 이틀간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대학교 캠퍼스

에서 개최된 제32회 BruinMUN 대회에 참가하여 총 5개의 상을 받으며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이번 UCLA 모의유엔대회는 2,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고, KAC MUN 학생들은 총

9개의 위원회에 배정되어 실제 외교관처럼 국제사회 현안을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참가자들과 열띤 토론과 경쟁을 펼쳤다. 이 중 ‘유엔평화구축위원회(UNPBC)’에 참가한 유진 권(Eugene Kwon) 학생이 장려상, 모니카 이(Monica Lee) 학생이 리서치상을 각각 수상했고, ‘위기관리위원회’의 제이미 임(Jamie Lim) 학생, ‘유엔평화구축위원회(UNPBC)’의 소피아 김(Sophia Kim) 학생, ‘유엔과학기술개발위원회(UNCSTD)’의 켈리 한(Kelly Han) 학생이 격려상을 수상하였다. 한미연합회 유니스 송 대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BruinMUN 대회에서 지속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어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더욱 잘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100인 연합 성가대가 찬양제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

라스베이거스 100인 연주회...은혜 충만한 찬양 축제

“찬양으로 잠엄함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맘껏 표현”

라스베이거스 서울문화원(원장 배상환)이 주최한 제8회 100인 연합 성가 합창 연주회가 지난 11월 12일(화) 오후 7시 30분 라스베이거스 갈보리장로교회(담임 조응철 목사)에서 알렉스 김 한인회장, 임인철 교회협의회회장, 정한수 재향군인회장을 비롯, 지역 단체장과 300여 명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주회는 오프닝 곡으로 <어서 돌아오오>

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청중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100인 연합 성가대가 찬송가 <어서 돌아오오>와 2곡과 CCM <은혜를 열어 주소서>와 2곡, 애창 성가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와 2곡, 고전 인회장을 비롯, 지역 단체장과 300여 명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동민 씨는 <웃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을 연주해 모두 18곡의 성가가 연주됐다. 특히 마지막 곡 <할렐루야>는 100인 연합합창단과 안디옥교회 성가대원 120명이 함께 곡이 갖는 장엄함과 위대함을 맘껏 표현했다.

이번 연주회의 연합 합창 지휘는 배상환, 김명옥, 반주는 최윤정, 김애영 씨가 맡았고, CTS America 지휘는 김명옥, 반주 김애영, 안디옥교회 지휘는 조재영, 반주 김혜진, 독창 변동민, 독창 반주 최윤정 씨가 맡았으며 라스베이거스 한인 합창단원 67명, CTS America 합창단원 33명, 안디옥교회 성가대원 26명이 참여했다. 100인 연주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참석하고 있는 노준태(69세)씨는 “이 연주회는 ‘발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몇 번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중단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청중이 늘어나고 연주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 밤 연주는 정말 큰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합창단에 관한 문의는 서울문화원(702-379-0222)으로 하면 된다.

(정리 이성자 기자)



학술세미나가 끝나고 연세아카데미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아카데미 학술세미나 팜스프링스에서 열려

연세아카데미(원장 지용덕 목사)는 지난 17일(주일)~18일(월)까지 팜스프링스 미라클 온천(Palmsprings Miracle Hotsprings)

에서 연세아카데미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신명균 목사(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중요한 목사(부원장) 대

표기도, 원장 지용덕 목사(신 16:13-17/‘조막절을 지키라’) 설교와 장근성 목사(전 연목회 회장)의 간증, 김영대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진행됐다. 이어진 학술 세미나에서 감사 신명균 목사는 ‘마약 중독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현실에 익숙해져 가는 마약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와 국가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며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새롭고 지혜로운 그리고 현실에 알맞은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방법 중 일례로 미국과 한국의 태권도 관장과 사범들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중요성을 알리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됐다.

(기사제공: 연세아카데미)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뉴잉글랜드 교회협의회, 가을부흥회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회장 장성철 목사 2600 Mass Ave, Lexington, MA 02421)은 '교회가 교회되게' 주제로 노진준 목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11월 22일(금), 23일(토) 오후 7시30분, 24일(주일) 오후 6시30분 가을 부흥회를 개최한다.
 ▲ 문의: 508-435-4579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21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단장 이은숙)은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 시무)에서 불우이웃돕기 및 선교기금모금 음악회를 위한 제2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 문의: 917-658-3181, 917-648-1876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24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는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늘기쁜교회(김홍석 목사 시무)에서 2024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을 개최한다.
 ▶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 문의: 한필상 목사 201-675-9591

필리 카메라타 선교합창단

필리 카메라타 선교합창단은 허리케인 밀턴 피해자를 돕기 위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12월 7일(토) 오후 7시30분 필라델피아 장로교회(정승환 목사 시무) 제2예배당에서 개최한다.
 ▶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문의: 박혜란 권사 215-499-0320

합창마을, 2024 연주회

합창마을(The NY Village Voices) 2024 연주회가 12월 7일(토) 오후 6시 통일앨런드 믿음장로교회(신정국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로 열린다.
 ▲ 문의: 646-732-0326

뉴욕성결교회, 향영송 담임목사 취임식 및 원로장으로 추대 감사예배

뉴욕성결교회는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향영송 담임목사 취임식 및 원로장으로(장석면, 박승희) 추대 감사예배를 드린다.
 ▶ 333 Arden Ave, Staten Island, NY 10312
 ▲ 문의: 718-948-0339

뉴욕센트럴교회, 헨델의 메시아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는 12월 8일(주일) 오후 4시 제14회 헨델의 메시아와 크리스마스 캐롤 Sing-Along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자녀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적, 문화적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 이날 수익금은 선교사 후원금으로 보낸다.
 ▶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 문의: 516-387-9940

에벤에셀선교교회, 안상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

에벤에셀선교교회는 12월 8일(주일) 오후 5시에 안상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린다.
 ▶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 문의: 917-723-2929

뉴욕교회, 제51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다시 거룩하게, 다시 건강하게, 다시 새롭게”



뉴욕교회, 제51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후 사진 촬영 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허연행 목사)는 지난 17일(주일) 오후 5시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다시 Again (은 2:4)'라는 주제로 제51회기 회장 및 임·실행위원 39대 이사장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열었다. 제51회기 회장 허연행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적합한 때"라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회복될 것을 기대 한다"고 밝혔다. 51회기의 주제를 '다시 Again'으로 정한 허 목사는 "크리스천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며, 교회가 다시 거룩하게, 건강하게, 새롭게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고 방관자가 아닌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식 목사(부회장) 인도로 시작한 예배는 한준희 목사(뉴욕목사회신임회장) 기도, 김용걸 신부(전 성공회뉴욕한인교회, 증경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김 신부는 '다 주께 맡겨라! (빌 4:8-10)'라는 제목으로 "종교개혁은 교회의 외적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뿌리로운 문제가 많았음을 알듯이 오늘날 서양 교회가 팔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51회기 교회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통해 뉴욕 교회의 발전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옥 목사(수석협동총무) 사회와 김홍석 목사(증경회장) 시무기도로 시작된 2부 이·취임식에서 직전회장 박태규 목사는 "50회기를 마무리하며, 교회는 지역사회와의 비전을 주도하고 교회의 소망을 기대하는 단체임을 확신 한다"며 "51회기에는 세대간 연합과 새로운 일꾼의 세움을 통해 전도와 선교 운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기 기대 한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이어 박성돈 목사(뉴저지교회협의회)는 "판단력, 공의, 정의의 덕목을 갖추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리더로 함께 걸어갈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김정호 목사(후러싱제일교회)는 "영적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더그 클레이 목사(하나님의성회 총회장)영상 축사, 크리스틴 길리브랜드(뉴욕연방상원의원) 서면으로 축사했다. 이어 허연행 목사(신임회장), 송윤섭 장로(신임이사장)의 취임 인사 후 허연행 목사가 임원을 소개했으며 이지용 목사(기도분과)에게 위촉장을, 박태규 목사, 조동현 장로, 유승래 목사를, 이광도 장로에게 감사패를 증정한 뒤 안장의 목사(증경회장)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51회기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부회장 주요식 목사 △부회장(평신도) 손성대 장로 △이사장 송윤섭 장로 △회계 박해용 장로 △부서기 김수경 목사 △수석 김명옥 목사.



청소년센터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뉴욕교회 청소년센터 30회기 정기총회

“교계의 미래는 다음세대에 달려있어”

30회기를 맞이한 뉴욕교회 청소년센터(AYC) 정기총회가 11월 14일(목) 오후 6시에 AYC가 위치한 교회회관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인도 최호섭 목사(대표), 기도 안재현 목사(이사), 성경봉독 송영임 권사(이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 최호섭 목사와 이사장 정인국 장로 양두체제는 김홍석 목사의 동의로 유임됐다. 이 체제는 2021년 정기총회부터 이어져 4년째 회기를 맡게 됐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2024 수입결산과 2025 수입예산을 보고했으며 이어 프로그램 및 행사 보고를 했다. 2024 행사로 △'온라인 세미나' 개최(CTS) △35주년 청소년음악회(뉴욕기독교교회) △청소년 농구대회(뉴욕센터교회) △뉴욕가정상담소가 공동으로 목회자 컨퍼런스(CTS) △제33회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친구교회) △음악회(예정 12월 1일, 뉴욕기독교교회) 등을 보고했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청소년할렐루야대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는 현실 가운데, 2일 연속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봄(사순절)과 가을(9-10월)에 하루씩 열고, 그 중간인 6월 정도쯤에는 찬양의 밤 같은 집회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개회기도 송윤섭 장로(이사), 회원점명 주영광 목사(서기),

개회선언과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서기, 감사보고 권급주 목사, 회계보고 및 프로그램 보고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대표 및 이사장 선거,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및 신안건 토의, 폐회기도 및 식사기도 김홍석 목사(이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 최호섭 목사와 이사장 정인국 장로 양두체제는 김홍석 목사의 동의로 유임됐다. 이 체제는 2021년 정기총회부터 이어져 4년째 회기를 맡게 됐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2024 수입결산과 2025 수입예산을 보고했으며 이어 프로그램 및 행사 보고를 했다. 2024 행사로 △'온라인 세미나' 개최(CTS) △35주년 청소년음악회(뉴욕기독교교회) △청소년 농구대회(뉴욕센터교회) △뉴욕가정상담소가 공동으로 목회자 컨퍼런스(CTS) △제33회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친구교회) △음악회(예정 12월 1일, 뉴욕기독교교회) 등을 보고했다.

김준현 사무총장은 청소년할렐루야대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인원동원에 문제가 있는 현실 가운데, 2일 연속으로 대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봄(사순절)과 가을(9-10월)에 하루씩 열고, 그 중간인 6월 정도쯤에는 찬양의 밤 같은 집회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정리: 김재상 기자)

미드웨스턴신학교 이상환 교수 뉴저지 공개강좌

“일차 독자의 눈으로 본 예수”



미드웨스턴신학교 이상환 교수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교회를 위하여”란 가치로 지역 교회를 섬기는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한국부가 11월 11일(월) 뉴저지에서 개최한, “신들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일차 독자의 눈으로 본 예수” 공개강좌가 좋은 호응 가운데 마쳤다. 뉴저지 잉글우드 구세주 한인교회(최다니엘 사관 시무)에서 진행된 이날 강좌에는 3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석했고, 러브뉴저지에서 제공한 저녁식사로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었다.

강사로 미드웨스턴의 성경해석학 교수이자 제2 성전기 문헌의 권위자인 이상환 교수가 섬겼으며, 신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방대한 자료를 활용한 깊이 있는 연구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별히 일차 독자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방법론을 통해, “예수님

은 결국 신들의 왕이다”라고 일차 독자들이 고백했던 이유에 대한 근거들을 변증했다. 이상환 교수는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Biblica 등 세계적인 학술지에 꾸준히 연구물을 발표하며 신진학자로서의 임지를 다져왔을 뿐 아니라, "Re: 성경을 읽다", "신들과 함께" 등의 저서로 주목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는, 남침례회(SBC) 산하 여섯 개의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 (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되어 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필라델피아 목사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함께 사진 촬영을 했다

제46회기 필라델피아 목사회 정기총회

회장 채왕규 목사, 부회장 김곤 목사

제46회기 필라델피아 목사회 정기총회가 11월 13일(수) 오전 10시 30분 뉴비전교회(담임 채왕규 목사)에서 열렸다. 공천부(부장 이대우 목사, 서기 이재철 목사)는 제46회 회장 채왕규 목사와 부회장 김곤 목사(예수사랑교회)를 공천했다. 이병은 목사에 이어 필라델피아 제43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채왕규 목사는 목사회에서 이병은 목사에 이어 회장이 됐다.

제45회기 목사회에서 채왕규 목사는 부회장, 김곤 목사는 총무를 역임했다.

제2 회의는 회장 이병은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회원점명 서기 김병일 목사, 회회선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서기보고, 총무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조무제 목사, 임원선거, 임원 이취임, 안건 및 토의, 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회장 채왕규 목사는 취임 인사를 통해 “필라델피아 선배 목사님들 동역자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있기에 필라델피아가 평안하게 있는 줄 안다. 소외된 목회자와 위기에 처한 목사님들에게 관심을 가지겠다. 특히 내년엔 필라델피아에서 미 동부 5개 주 목사회 체육대회가 있다. 잘 준비해서 동부지역 목사님들을 잘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피종진 목사 12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010-5255-7777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Godbless3377@gmail.com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ki(Th.D)

제 234차 해외성회 (234th Overseas Assembly)
 미국(U.S.A) LA 희망찬교회(준비위원장 백지영 목사, 평통 미주 상임고문)
 미국(U.S.A) LA Vision Church
 미국(U.S.A) LA Sams Community Church(Pastor,Sams)
 미국(U.S.A) LA 은혜선교회
 미국(U.S.A) Las Vegas 늘푸른교회(노은철 목사)
 미국(U.S.A) Las Vegas 중앙장로교회(임인철 목사)
 미국(U.S.A) Las Vegas - LA → KOREA 한국(KOREA) 17시30분 도착

9(토) 정오 남서종영교회(Elders year-End) Gathering
 10(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11(월) 오전 연세대학교 목회자동문 송년의 날 주관 : 연세동문목회자부흥협의회(대표회장 박형준 목사, 사무총장 이강봉 목사) 장소 : 연세대 백양누리 부천예림교회 주최 : 노헤미야부흥사(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11(월)~12(화) 전주 셋별교회(원장 박순자, 원목 최충만 목사) 010-3678-5942
 13(수) 오전 남양주 늘푸른진교회(이석우목사) 010-2250-4690
 13(수) 저녁 서울대학교 A&K 총동창회(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2층 무궁화홀) Benediction
 14(목) 오전 국제선교회(학장 강영준목사) 010-9260-1091
 14(목) 오후 고양시 축복교회(지영희 목사) 010-6374-4855
 14(목) 오후 한미부흥강사단(KURS)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이귀범 목사) Special Concert 장소 : 가평공연홀 010-2238-399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Meeting Ceremony (준비위원장 Jasom Paik) 010-2238-4592
 Business Blessing Event World Gospel Mission Association
 16(토) 오후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17(주) 저녁

18(월)~19(화)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Bethel 천안교회(허용철 선교사)
 20(수)~21(목) 필리핀(Philippines) Calamansi 지역 원주전면도성회 (준비위원장 허용철선교사) 귀국
 22(금)~23(토) 천안 위대안교회(윤재민 목사) 010-6352-0691
 24(주) 오후 김포 김림교회(조경숙 목사) 010-8222-1992
 25(월) 성탄절 Important Charity
 26(화) 오후 서울 강남순종교회(오승준 목사) 010-9667-5321
 27(수) 오전 구리 성진교회(김영준 목사) 010-9260-1091 주최: World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28(목) 오전 웃음힐링선교회(총재 이웃을 목사) 010-8947-2011
 29(금)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정지훈 목사) 010-8331-3431
 31(주) 자정 남서종영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권순 목사) 02-3411-9191 송구영신축복대안수기도성회


www.nsca.or.kr
대한예수교장로회
뉴욕주립대학교
뉴욕신학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09(잠실로)



남가주장로성가단이 '천사의 말을 한다해도' 찬양을 올려 드리고 있는 모습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5주년 주일예배에서 강준민 담임목사와 전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다

남가주장로성가단 제 29회 정기연주회 성료

“신앙의 연륜만큼 큰 감동과 은혜, 신앙의 고백 담겨”

남가주장로성가단(단장 한경환 장로/지휘 장진영/반주 윤경미) 제 29회 정기연주회가 17일 오후 5시 파세데나장로교회(담임 최진영 목사)에서 개최됐다.

허경환 단장은 “창단 이후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국내외 선교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펜데믹으로 인한 격변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오늘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최진영 목사가 시편 148편을 봉독한 뒤 “오늘 본문은 온 천지와 만물과 모든 지으신 이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주적 성가대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 찬송 받기를 원하신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은 신앙의 연륜만큼 큰 감동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했다.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자”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등단한 장로성가단은 오프닝 송으로 '복있는 사람들, We shall Overcome, Soon and very soon'을 들려주었

며 이어 소프라노 이영주의 무대로 '보석의 노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선사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연주회는 남가주장로성가단이 준비한 10여곡의 합창곡과 중창팀, 혼성합창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혜성의 풀렛연주로 들려준 타이스의 명상곡과 Carmen Fantasy는 이날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 주었다. 남가주장로성가단의 마지막 곡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보라'가 마쳐질 때 참석자들이 소리 높여 앵콜송을 요청함으로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을 선사한 뒤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부르며 음악회의 막을 내렸다.

각 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남가주장로성가단은 1992년 12월 창단돼 매년 찬양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에 동참해 오고 있다. 단원이 되기를 원하는 장로들은 단장 (310-626-7904)이나 총무 (818-523-9147)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 새누리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박성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새누리교회 2024 총동원 특별새벽축제

“건강한 목회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남기는 것”

남가주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는 2024총동원 특별새벽축제를 '새 시대, 새 능력(마 1:10)'이라는 주제로 지난 4일(월)부터 23일(토)까지 매일 오전 5시15분에 개최했다. 15일(토) 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열린 11번째 특별새벽축제는 박성근 목사가 막 3:7-15를 설교했다. 박성근 목사는 “잭 웰치 GE회장은 그가 재직하는 동안 기업을 4000배 성장시켰다. 기업을 성장시킨 것은 기업의 시스템과 기술력보다 바른 사람을 세워서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로이다.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만 제대로 세워져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그 비근한 예가 사도바울”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최상의 전략은 건강한 목회하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결국 남은 것은 사람밖에 없다”며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바른 일

꾼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주님이 함께하심이 필요하다. 둘째 보내주심이 필요하다. 셋째 권능 받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한다. 우리 마음의 진정한 소원은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차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름 받았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우리 삶을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합심기도를 한 뒤 박성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코이노니아선교회 노인아파트 방문 음악회 열어

코이노니아 선교회(대표: 박종희 목사)는 샌 피드로에 있는 100여 명의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음악회를 지난 14일(목)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개최했다. 이

새생명비전교회 창립15주년 주일예배

“앞으로 15년간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 해”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창립15주년 주일예배가 17일(주일) 예배시간에 열렸다. 11시30분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안세진 목사 사회로 시작된 3부 예배는 박병태 장로가 기도했으며 강준민 목사가 '배려와 겸손(행 11:19-26)'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준민 목사는 “하나님은 성품을 소중히 여기신다. 초대교회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헬라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발생했고 안디옥교회가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초대교회 모델이 되었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안디옥교회가 좋은교회가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셨다.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킨다. 고난의 깊이가 성숙의 깊이를 결정하며 새 역사를 창조한다. 고난을 통해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 둘째, 하나님은 배려의 사람을 통해 새 역사를 창조하

셨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지도자와 성도들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건강한 것은 구김살이 없는 것,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착한 성품, 위로하는 성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한다. 셋째, 무대 뒤에서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셨다”고 말했다. 그는 “새생명비전교회를 창립하고 15년간 감사한 것은 성도들 중 바나바와 같은 자가 많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었으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했다. 앞으로 15년간 놀라운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발자취를 담은 영상이 소개되었으며, 찬양사역자 한홍재 목사와 김도현 형제가 '소원', '성령이 오셨네', '좋은나라'를 불렀다. 이날 예배는 강준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 음악회가 마친 후 전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35주년 기념 음악회

‘오케스트라와 협연, 전통적인 재즈 음악의 진수 선보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개교 35주년 기념 음악회가 15일(금) 오후 7시30분 미주 평안교회에서 ‘소리의 향연(A Celebration of Sound)’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다. 이번 연주회는 그동안 본교 음악과가 매 학기 펼쳐진 학생음악회(Student Music Festival) 연주회를 축하행사와 결들여져 열리게 되었다. 임성진 총장은 “저희학교 개교 3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게 되어서 감사하다”라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는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춘희(La Traviata)에 나오는 서주와 아리아, 그리고 듀엣을, 이어서 모짜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중 가장 대중적인 피아노 협주곡 (No. 23)을 피아니스트 임정현이 오케스트

라와 협연했으며 그리고 ‘알렐루야’로 잘 알려진 모짜르트의 모뎃 (Exultate Jubilate)을 소프라노 백희은이 부르며 축제의 서막을 장식했다. 이어 본교 실용음악교수들이 주축이 된 유명한 재즈 앙상블 그룹인 Jeff Trio 가 특별 출연하여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통해 미국의 전통적인 재즈 음악의 진수를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오위영, 최원현, 오정록 등 한인사회에 가장 대표적인 세명의 테너들이 함께 오페라 아리아, 칸초네를 가지고 테너 소리가 주는 고음의 화려함을 뽐냈으며 전출연자가 베르디의 대표적인 오페라 춘희(La Traviata)의 Brindisi를 마지막 곡으로 부르며 소리의 향연(A Celebration of Sound)에 대미를 장식했다.

(박준호 기자)

공연되었다. 음악회를 주관한 코이노니아 선교회 박종희 목사는 “우리 선교회의 찬양사역과 노숙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섬김의 기회가 가능하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나성서울교탈 제75회 정기연주회

나성서울교탈(단장 윤영석, 지휘 진정우 박사) 제75회 정기연주회가 12월1일(주일) 오후 7시 LA연합감리교회(담임 이창민 목사)에서 열린다. 창단 50년을 맞이한 나성서울교탈의 정기연주회에는 소프라노 황혜경과 바리톤 김경태가 찬조출연하며 반주는 박정미(피아노), Amy Tatum(플룻), Michael Davis(트럼펫) 등이 맡는다.

▲ 문의: (562)858-5200

충현선교교회 임직예배 및 임직식

충현선교교회(담임 국윤곤 목사)는 임직예배 및 임직식을 24일(주일) 오후 3시에 거행한다. 이날 임직식은 3명의 장로, 4명의 안수집사, 30명의 권사가 임직을 받게 된다.

▲ 문의: (949)864-9162

고 원희천 목사 천국환송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가주노회장과 서가주노회 공동목사,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소속 문인으로 활동하던 원희천 목사가 지난 11일 향년 92세로 소천했다. 고인의 입관예배는 11월21일(목) 오후 7시에 은혜와평강교회에서 열렸으며 하관예배는 23일(토) 오후 12시 로즈힐메모리얼파크에서 열린다.

▲ 문의: (626)701-0800, (213)247-2935

‘주안에교회’ 제2대 이 크리스 담임 목사 취임예배

주안에교회(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제2대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22일(금) 오후 7시 30분 주안에 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주안에 교회 당회는 “창립 11주년을 맞아 주안에 교회는 제2대 담임목사로 이 크리스 목사님을 청빙하기로 결정했다”며 취임예배 공고를 냈다. 이 크리스 목사는 그동안 주안에 교회 EM(영어부 목회)를 담당해 왔다.

▲ 문의: (818)363-5887

러빙워십 ‘Beloved’ 콘서트

러빙워십(대표 조셉 리 목사)는 ‘Beloved’ 주제로 콘서트를 오는 12월 13일(금) 오후 8시, 그리고 14일(토) 오후 7시 라미라다극장(1490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조셉 리 목사를 비롯해 한국 CBSTV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 주영훈, 박요한 목사, 가수 시크릿, 조범진 교수가 출연한다.

▲ 문의: (213)357-1565



이병호 돌로스선교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마친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돌로스선교교회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될 것”

돌로스선교교회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17일(주일) 오후 4시 거행됐다.

돌로스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천영 목사(갈릴리선교교회)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조정차 장로(돌로스선교교회) 기도, 이병호 목사(LA지방회 서기) 성경봉독, 바리톤 장상근의 특색찬양으로 이어졌으며, 이대연 목사(LA지방회 부회장)가 ‘주님의 도구(딤후 2:20-21)’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대연 목사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첫째 깨끗한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셋째,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넷째, 유용한 자이다. 다섯째,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돌로스선교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된 교회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천영 목사가 담임목사를 소개했으며 이대연 목사가 서약, 치리권 부여, 공포했다.

이병호 목사는 “기도와 격려 해주신 동역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7년 유학 온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보람자리가 되어주시는 이모님 가정과 끊임없는 사랑으로 함께해주신 가족들, 특별히 눈물로 지켜 주신 돌로스선교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직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도록 헌신 하겠다. 하나님만 기뻐하고 땅 끝까지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작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호 목사 사회로 열린 3부 축하 및 인사는 안용식 목사(김해제일교회 원로)와 이중일 목사(방주교회)가 권면, 박성민 목사(전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부총장)가 축사했으며 이병호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이용원 목사(미주성결교회 증경총회장, 샌프란시스코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박종희 코이노니아 대표(오른쪽에서 4번째)가 출연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마약 OUT, 20대 마약 침투 막는 캠퍼스 수호대 뒀다.

캠퍼스 사역단체 등과 연대해 초기 접근 막아야

지난 8월 '무더위' '휴가철' 등을 제치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 검색어가 있다. 바로 '마약'이다. 회원수 전국 2위를 기록하던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가 마약 소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캠퍼스라는 친근한 동아리 이름에 감춰진 추악한 행태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캠퍼스의 꽃' 가을 축제에 한창이던 각 지역 대학 곳곳에 눈에 띄는 부스가 잇따라 세워졌다.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진 부스에는 '마약 제대로 알자' '약하지 않아' 등 마약 예방 캠페인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었다. 학내 마약예방활동단원들이 또래 청년들에게 마약 중독에 관한 바른 정보를 알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서울 동작구 종신대(총장 박성규 목사)에 마련된 부스에선 코카인 대마쿠기 LSD(환각 마약류) 등 경계해야 할 마약 소

개, 마약에 관한 상식을 체크해볼 수 있는 OX퀴즈, 마약 근절 서약서 인증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 당시 캠페인을 이끌었던 서경민(20) 종신대 마약예방활동단 '다운' 대표는 인터뷰에서 "막연하게 마약이 나쁜 것이라 고만 생각하던 학생들이 실제 마약의 생김새, 급속하게 노화된 마약 중독자의 사진을 확인하며 위험성을 체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동작구 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한 마약류 의명 검사는 참가자들에게 일상에 파고든 마약에 대한 인식을 깊이 새겨줬다. 서 대표는 "당시 호기심으로 검사에 참여한 한 학우에게 양성 반응이 나와 깜짝 놀랐는데 복용했던 감기약 성분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집중력 향상제, 다이어트약 등 일상에 침투한 마약류 성분의 위험성을 각인시킬 수 있었던 기회"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

약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가 30.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장을 맡고 있는 조현섭(종신대 중독재활상담학) 교수는 "20대는 성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데 과거와 달리 마약을 소분해 거래하는 게 활성화 되면서 피자 한 판 값이면 마약을 접할 수 있고, 조금만 투약하면 기분은 좋고 중독까지는 안 될 거라는 착각이 더해져 쉽게 경계심이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현재 한국외대 강원대 전북대 한동대 등 전국 10개 대학에서 마약예방활동단이 운영 중이다. 활동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약 중독 예방 캠페인, 중독자를 위한 기도회, 중독을 경험한 회복자 초청 강의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캠퍼스별 실태 조사를 종합해 다음 달 7일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캠퍼스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 목사는 "외국인 유학생 중 일부 국가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나라도 있다"며 "국내외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교제를 나누는 동안 무분별하게 마약이 확산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필수"라고 했다. 이어 "내년도 캠퍼스 사역을 준비하는 요즘 캠퍼스 사역단체 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무브먼트(운동)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MZ세대를 사로잡는 '성경극장' ...

전도와 재미 동시에

보고 듣고 느끼고 발견하는 4차원 스마트 마케팅 전략을 활용한 '성경극장'이 최근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정식 등록(등록번호: 제C-2022-026935호)됐다. 2002년 FIFA 월드컵 공식 홍보 연주단을 이끌었던 황철로 아트엔젤스 단장은 19일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성경극장이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사랑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경극장은 성경 66권을 영화로 제작해 16개의 에피소드로 상영하는 '쇼교회(SHOW CHURCH)'의 형태라는 게 황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보고, 듣고, 느끼고, 발견하는 4차원 공식 홍보 연주단을 이끌었던 황철로 아트엔젤스 단장은 19일 이 같은 소식을 알리면서 "성경극장이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사랑받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성경극장은 1920x1080p 초고화질 영상과 5.1채널 음향 시스템으로 극장 수준의 몰입감을 제공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요 사건을 다룬 16편의 영상으로 구성된다. 황 단장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 수준 높은 영상 콘텐츠를 자랑한다"며 "성경 완독이 어려운 이들에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성경 이해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운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운영 컨설팅은 황 단장이 무료로 지원한다. 이동식 시스템을 통해 도서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상영할 수 있어 누구나 신청하면 성경극장을 경험할 수 있다.

황 단장은 "초고속 시대엔 긴 설교는 외면받기 쉽다. 성경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MZ세대에게 더 다가가는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터... '비즈니스와 전문직 선교'

부산총연합회, CBMC-DAY 가족명랑운동회 개최

(대한민국기독교선교사역부총연합회 부산총연합회(부총연·박남을 회장)가 지난 16일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동서대학교(총장 장재국) 민석스포츠펀드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 60:1)를 주제로 '제24회 한국CBMC 부산총연합회 CBMC-DAY 가족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CBMC-DAY는 부총연 행사 중 가장 크고 의미 있는 행사로 치러진다. 이번엔 참가한 회원들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했다.

이번 행사는 총 5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승규 부총연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홍근 부총연 증경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정인규 정금교회 목사가 '하늘에 뿌린 비즈니스'(행 28:3)란 제목으로 함께 묻고 답하며 말씀을 배우는 '하브루타

(Havruta)설교' 방식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정 목사는 "하브루타 설교의 핵심은 질문이다"고 말한 뒤 설교를 도와 줄 3명을 현장에서 지명해 강대상으로 올라오게 했다. 강대상에서 오른 3명에게 '미소마' '위그노' 'CBMC'란 알듯 모를 듯 한 문구의 피켓을 전달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정 목사는 "'미소마'(셋 집, 행 28:30), 일터, 교회에 게실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불어줄 영혼들, 보내주시는 사람은 CBMC 선배였다. 우리 CBMC의 신앙 선배들 '위그노'(프랑스신교도) 상품에 그리스도 성품을 명품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3대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회장의 대표기도에 이어 정인규 정금교회 목사가 '하늘에 뿌린 비즈니스'(행 28:3)란 제목으로 함께 묻고 답하며 말씀을 배우는 '하브루타

통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생활과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적 경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 자리가 위로하는 축복의 시간, 새로운 한해를 결단하는 희망의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김상권 부총연 증경회장단 직전회장에게 공로상을 전달했다. 김상권 장로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부산 CBMC와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위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했다. 정인규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의 시간을 마친 회원들은 응원과 울동으로 명랑운동회 참여자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역 CBMC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제와 화합의 시간을 가지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자리였다. 운동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가족단위로 팀을 이뤄 협동과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는 종목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족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건강한 경쟁 속에서 CBMC의 가치를 되새기며 친목을 다지고 서로를 응원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국교회, 전쟁 1000일 맞은 우크라이나인에게 희망의 성경 전해

대한성서공회, 한국교회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최근 7차 성경 지원

러시아 침공으로 발발한 전쟁을 1000일간 견뎌낸 우크라이나인에게 한국교회가 현지어 성경 6780부를 최근 전했다. 이

번이 7차례 발송이다. 대한성서공회(이사장 김경원 목사)는 한국교회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성서공회에 우크라이나

나어 성경 5280부와 우크라이나어-헝가리어 대조 신약성경 1500부를 기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과 11월에 발송된 이들 성경은 우크라이나인과 헝가리로 이주한 피난민에게 전달된다.

한국교회는 우크라이나성서공회의 요청으로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현지어 성경 41만 6380부를 지원했다. 아나폴리 레이키네츠 우크라이나성서공회 부총무는 대한성서공회에 전해온 감사 인사에서 "장기화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성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학교를 떠나 방공호에 있는 아이들과 전장 속 군인에게 성경은 큰 희망과 위로가 된다"고 밝혔다.



생명나눔과 웰다잉의 만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2024 리본클래스' 개최

삶과 죽음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고찰하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가 지난 2일과 9일 서울 영등포구 TCC아트센터에서 후원회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2024 리본클래스'에서다. 이번 행사는 생명나눔과 웰다잉(well-dying)을 주제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2일 열린 제1회 리본클래스는 클래식 기획사 예폴뮤직(대표 최혜영)의 재능기부로 선보인 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가 '줄 수

있는 특권'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손 교수는 "장기기증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처럼 고귀한 일"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생존 시 신장 및 간을 기증한 이태조 목사, 신장기증인 백장전 씨, 후원회원 동윤채 씨와 김나경 씨가 무대에 올라 생명나눔의 소중한 경험을 나눴다. 2007년 뇌사 장기기증인의 신장을 이식받은 김나경 씨는 "7년간 투병 끝에 기증으로 새 생명을 선물받았다"며 "2014년부터 거부반응으로 재투석 중이지만, 기증인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만성신부전 환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제주 라파의 집을 후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열린 제2회 리본클래스는 웰다잉의 의미를 심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죽음준비교육 전문 강사인 유경 사회복지사는 특강 '남기고 싶은 이야기, 남마다 행복'에서 참석자들과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점과 사례를 나눴다. 특히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상적인 죽음을 기록하는 '나의 사망기' 작성 시간은 깊은 감동을 남겼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드라이플라워 석고 방향제 제작, 인생 그래프 작성 등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향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상임이사는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률이 전체 국민의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일 7.9명이 이식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와 장기기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생명의 나눔 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부는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인 가구 고충 들어보니...

'온정' '함께'가 필요한 이웃들

"혼자 아플 때가 최악이었어요. 심하게 아플 때는 나가서 약도 못 사고, 밥 해먹을 기운도 없어서 며칠 동안 누워있기만 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에요."

몽골 출신 혼자아(가명·35) 씨 얘기다. 2013년 건축 전공을 살려 일하고자 한국에 첫발을 디딘 그는 근로와 유학생활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레 1인 가구 이주민이 됐다. 이른바 '나홀로족' 11년째인 그에게서

는 불편함을 넘어 외로움, 나아가 공동체에 대한 갈망도 느껴졌다. 혼자아씨는 18일 통화에서 "(교회) 이주민이나 1인 가구를 단순히 도와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공동체로 있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1000만 시대"에 접어들어 한민국 1인가구 주인공들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혼자 살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충은 무엇인지, 그걸 해소할 방법은

뭐가 있는지 물어봤다. 이주민을 비롯해 자립준비청년, 1인 청년직장인, 홀몸 노인들의 애기 속에선 '함께' '보듬는' '따뜻한' 같은 단어가 유독 의미있게 다가왔다. 혼자아씨처럼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졌다.

자립준비청년 정서현(22)씨는 3년째 홀로 살고 있다. 정씨도 역시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 "예전에 열이 많이 났을 때, 움직이기도 힘들때 혼자 병원을 가야 하다 보니 서러웠다"고 전했다.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가고 싶냐는 질문에 정씨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그는 힘들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면서 삶을 버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음식 재료나 식료품 등으로 1인 가구를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를 보듬고 관계를 이어가는 섬김·돌봄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교회에 제안한 것이다.

mission 선교의 창 (25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미국 47대 대선(大選)에 나타난 민심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47대 미국 대선이 끝났다. 백중세라는 여론 조사 기관의 말과는 달리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겼다. Associated Press(AP)자료에 의하면 득표수가 76,537,938(50.%) 대 73,922,971(48.3%)로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인단 수(312:226)와 주(31:19) 별로 보면 차이가 크다. 특히 트럼프는 판세를 좌우하는 경합 주 (States) 7곳을 모두 이겼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비단 대선뿐만 아니라 상, 하원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이로써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될 트럼프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1표라도 더 많은 자가 모든 권한을 싹쓸이하는 미 선거 제도를 보면서 패배 진영의 마음은 얼마나 허탈할까를 생각해본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승자는 패자는 중요한 것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 나타난 표심을 무엇인가?

미국 유권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였다. 비록 실업률이 낮고, 주식 시장은 호황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물가 상승률이 1970년대 이후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연일 집값과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런 경제 환경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들은 고통을 체감하고 있다. 누가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당

고 한다. 이는 2021년 1월 바이든 (Biden) 정부가 들어설 때 1,000만 명 때보다 400만 명이 늘어난 숫자이다. 바이든 집권 이후 불법 이민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 사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들어온 저들로 말미암아 더 불안해졌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동조자가 많았다. 공감은 표

태, 동성애, 마약 중독, 도박, 총기 사고, 홀리스 출현 등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본적 시발은 성경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위기감을 느낀 가운데 힘을 합쳐 강력한 정치 운동 세력을 형성했다. 참고로 Gallup, Inc. (2023) 의하면 미국인은 종교 분포도는 Protestant (33%), Catholic (22%), Christian (unspecified) (11%), Jewish (2%), Mormon (1%), Another religion (6%), No religion (22%), No answer (3%)이다. 이로서 미국 개신교도는 40%-45% 사이로 추산할 수 있다.

인은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다.

5. 미국 우선주의

그간 미국은 Big Brother격으로 세계의 우방들을 지원해왔다. 한 예를 들자면 “미국은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에 1000억 달러(약 134조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말했다(앤토니 저커: BBC 북미 특파원).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었다. 이스라엘을 비롯 우방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얼마나 될까? 남을 돕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도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이다. 지금 미국은 재정적으로 어렵다. 국가 재정에 비해 지출해야 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손익 계산을 따졌다. 이로써 그는 지난 대선에서 America First를 추구했고 이번에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캠페인을 외쳤

할 수 없는 두 곳의 전쟁, 실리 없이 세계를 떠안아야 할지 등 어느 것 하나 간단치 않은 도전들이다. 그러므로 미국인은 금 번 선거에서 후보자의 됴됨이 보다 그 정책과 방향성을 중시했다. 이런 생각은 미중부의 공화당 벨트인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히스패닉과 아세안 신도들도 공감대를 이루었다. 선택의 질문은 간단했다. 누가 더 미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람들은 평가했다.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는 바이든 정권의 연장 선상에 서 있다는 것이다. 비록 트럼프는 사법적으로 걸려 있으며 윤리적으로 흠결이 많다 할지라도 스트롱 맨으로서 “뭔가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컸다.

에필로그(Epilog)

이제 정쟁의 싸움은 끝났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모두가 성조기 아래서 하나이다. 상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 1)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했다.
2)금 번 대선 가운데 미국민의 열망이 드러났다.
3)선출된 차기 지도자들은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연히 현 집권세력이다.

2. 불법 이민자

미국 인구는 2024년 11/18 기준 346,133,980 (Worldometer의 자료) 명이다. 인구 분포는 백인 58%, 히스패닉 19%, 흑인 13%, 아시안 6%, 원주민 1.2%, 기타 2.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계계를 보면 인구수와 영향력에서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무리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라 할지라도 저들 중 보수적인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탄압하게 여길 리 없다. Pew Research Center에 의하면 2024년 2월 기준 미국 내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s)가 1,400만 명이라

이어지기 마련이다.

3. 보수적 신앙

미국은 뉴잉글랜드의 순례자들(pilgrims) 및 정교도들(puritans)의 정착촌들에서 시작되었다. 248년 역사가 흐르면서 저들 신앙과 생활방식은 널리 퍼졌고 다른 신교도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때로는 그것이 정화되고 수정되며 희석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정교도들의 사상은 미국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현대 1960년대 들어되면서부터 보수적 신앙노선은 많이 굴절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

(WSJ)은 현재 양쪽의 사상자만 해도 100만 명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NATO 동맹국, 아세아 나라 등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는 총 1,780억 달러(약 237조 5,410억 원)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전쟁이 끝이 안 보이며 북한 참전 등으로 확전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중동 사태는 어떠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 (Israel - Hamas war) 간의 전쟁은 더욱 복잡하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넘어 레반트 반군, 이란까지 상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으로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이에 미국

다. 그는 아무리 우방이라도 퍼주기 식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다수의 미국인이 표로 화답한 것이다.

맺음말

“만일 당신이 환자라면 친절하나 실력이 없는 의사에게 갈 것인가? 아니면 성품과 행위가 거칠고 불량하나 수술만큼은 끝내주는 사람에게 갈 것인가?” 이는 47대 미 대통령 선거 후 한 논객이 던진 말이다. 그만큼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절박한 문제 앞에 놓여 있다. 높은 물가로 인한 중산층의 재정적 압박, 담 넘어 몰래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들, 무너져가는 보수적 신앙 가치, 외면

것이다. 승자는 따뜻한 가슴으로 패자를 부축해야 한다. 패자는 승자가 의로운 통치를 하도록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극한 대립으로 인해 백성이 나뉘었다. 서로의 반목을 이제 미시시피강물에 떠내려 보내야 한다. 너 없는 나, 나 없는 너는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선택받은 종들은 빈 마음으로 얻힌 문제들을 풀며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초석을 다져야 한다. 그래서 47대 정권이 끝나는 날, 미국이 다시금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 Jrsong007@hanmail.net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미국, 중동선교전략가)

36강 사울 (사무엘상 8-15장) 2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삼상 8:6)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사무엘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 8:7)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 체적으로 보면 아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되,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삼상 8:9)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삼상 8:10-18). 사무엘은 너희가 원하는 사람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

니하시실 것’이라고 합니다(삼상 8:17,18). 그래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 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니이다(삼상 8:19,20)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삼상 8:22)고 하십니다. 문장으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하셨지만 문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부분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가나안 정탐도 하나님의 원하신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대한 ‘부분 허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대하 12:8)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삼상 9:16)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왕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결정하시어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기에 좋은 왕’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준수하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큰’ 사울을 고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주변 왕들의 모습, 용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워집니다(삼상 9:17-10:28).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삼상 9:21)라고 합니다. 심지어 사무엘에 의해 기름부음을 받고 예언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지만(삼상 10:1-12) 그는 그 사실을 그의 숙부에게 숨기고(삼상 10:13-16) 또한 사무엘에 의해서 백성 앞에서 왕으로 세워질 때는 숨기도 합니다(삼상 10:22).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 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

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삼상 10:18,19)라고 다시 한번 쓴 소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사무엘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느니라(삼상 10:24)고 하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이처럼 세상이 원하는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으로는 앞으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삼하 14:25)과 아도니야(왕상 1:6)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의 차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처절한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사울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새 마음’도 받고 ‘새 사람’도 되었습니(삼상 10:6-10).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

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신 것은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삼상 9:16)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잠시 사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에게도 잠시 ‘새 마음’을 주어 ‘새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의 소견에 옳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 주지 않으셨기에 세상에서 세상을 보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성령으로 역사하시지만, 때론 그것이 ‘구원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병고침과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역사의 한 부분이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다 구원의 역사가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hfamilyfa@gmail.com

여호와께 감사하기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 (714)521-4636</p>	<p>그린스보로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일철 3523 Johnson St High Point, NC 27265 Tel. (336)841-8439 www.kpcgnc.com/</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홍철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 (213)481-2779 www.srcla.org</p>
<p>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9</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www.bkc.org</p>	<p>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p>	<p>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 김순관목사 Tel. (808)542-2922 www.ikccah.org</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 (213)745-9191</p>	<p>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p>	<p>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 (323)-737-3009</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함성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325-4020</p>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 (310)530-8400</p>	<p>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G100 Honolulu HI 96817 Tel. (808)585-1859</p>



"사랑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증양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6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353.2424 뉴저지 | 201.945.2009

매일가정에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눅 6:27-28) 찬 370장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능력이요 주님의 것을 누림이 주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사는 것이다. 육신 안에서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사는 삶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다. 나의 원수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

에게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욕신에서 나타나는 것을 누리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죄의 것을 사용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살라 하심이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다. 장차 천국에서 상이 큰 삶이다. 주님의 것으로 살라. 영원한 주님의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눅 6:32-36) 찬 362장

육신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 주인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없다.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의 것을 많이 사용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 삶에게 상이 있다. 주님이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삶에 상이 있는 것이다. 자신을 위

하여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빛을 많이 나타난 삶을 산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사용하며 사는 것이다. 자신을 위하여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고 주님의 것을 누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다.

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 (눅 6:39-42) 찬 270장

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자들이 있다.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증거하여야 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단지 말씀만 알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야 한다.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성품 즉 들보를 깨달아야 하며 상대방에서 나타나는

죄의 티끌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타나는 삶에 있는 죄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자신 안에 있는 죄가 훨씬 크고 큰 것인데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깨달아야 이웃에게서 나타나는 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도울 수 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자.

목 백부장의 믿음 (눅 7:6-10) 찬 289장

백부장에게 주신 믿음이 나타난다. 주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에게 나오게 하시며 그 믿음을 누리 그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님이 만 왕의 왕이시며 만물이 주님 앞에서 복종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닫게 하셨다. 이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오심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이 부정한 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주인이심을 알게 됐다. 나아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살리시는 분이심과 그 권세를 깨닫도록 믿음을 그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의 하인을 고쳐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받아 마음에 품고 누리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상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금 예수님을 힘써 알자 (눅 7:12-16) 찬 405장

예수님을 힘써 알자.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알자.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알자. 할렐루야! 죽음도 주님 안에 있어서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주인이시다. 살아있는 자도 죽은 자도 주인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죽음에서 불러내어 다시 살아 일어나게도 하신다. 그는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를 생명책에 포함 시키신 주인이시다. 인생

의 모든 문제가 주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죽은 아들이 살아난 사건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아야 한다. 그 권세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주의 능력과 이주심을 그 영광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토 죽음에서 생명으로 (눅 7:21-22) 찬 412장

죄로부터 사망이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하신다. 질병에서 고통에서 악귀들에게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 메시야, 기다리던 구원자가 오신 것이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오늘날 주님께서 주의 기뻐하는 뜻 안에서 일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 주님을 위하

여 일하시는 것이다. 만물은 주인을 위하여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바로 주인의 것이요 주인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알고 살아야 한다. 오늘날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참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허락하시는 참된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자.



교회음악 이야기(67)

현대 예배자들을 위한 고전음악의 재 발견

“라틴 텍스트에 의한 레퀴엠과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Ein deutsches Requiem)을 중심으로” VIII

나가는 말

라틴 텍스트를 가지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작곡되어 불린 레퀴엠은 분명 죽은 자를 위해 드리는 미사에서 출발한 연주용 음악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잠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산 자들을 향한 삶과 죽음에 대한 외침이다. 즉, 이 음악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산 자들이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무서운 경고를 보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브람스의 레퀴엠은 더 없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복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말하고 있다.

이 두 종류의 레퀴엠은 텍스트의 접근 방법과 동기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목적은 동일하게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선명히 제시하고 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이 당시 교회 예배에 음악을 적용하는 접근 방법은 서로 판이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동일하게 음악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일점일획이라도 희석되거나 의미 없이 표현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음악 철학이나 찬양관은 유사했고 이들이 펼쳤던 교회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했다. 즉, 목적은 같았지만, 접근했던 방법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위 두 종류의 레퀴엠의 방향은 판이하게 다르게 접근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산 자들을 향한 울림이라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개신교(Protestant) 예배음악에 있어서 레퀴엠이라는 장르가 아직도 로마 가톨릭의 전통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혹 그것을 도외시키고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은 개신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된 1세대 그리스도의 전통을 이어 초기,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복음의 전통을 유지했던 서방교회에서 파생된 기독교이다. 개신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세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비뚤어진 신학과 신앙 노선이 그들과 너무 다르다 하여서 모든 전통까지 다 싸잡아 바꾸려 하는 것은 큰 무리가 될 수 있다.

서양 음악사에 있어 개신교의 출발이 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전인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다성 음악은 가톨릭 예배음악의 뿌리요 전통이다. 그러므로 그 시대 음악을 외면하고는 개신교 음악을 절대 논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당시 가톨릭의 음악이 개신교 교회음악의 뿌리가 된 셈이다. 그렇기에 가톨릭의 음악에 있어 좋은 전통들 즉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수용해야 할 것이고, 혹 바뀌어야 할 것은 수정하여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레퀴엠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표현할 때 하나는 “진혼곡”이요 다른 하나는 “장송곡”이라고도 표현한다. 하지만, 이 두 단어는 레퀴엠(Requiem - Eternal Rest)이라는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표현된 단어이다. 얼마 전 필자가 미주에 있는 여러 기독교신문 기자들과 함께 레퀴엠 장르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진 적이 있다. 이때 필자가 레퀴엠이라는 단어를 직역하여 설명하자 어느 기자가 필자에게 던진 질문은 우리가 사용하는 진혼곡, 혹은 장송곡이라는 말은 레퀴엠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적절치 않고 그냥 “레퀴엠”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 무방

윤임상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대학원
음악과장, 학생처장



하지 않으나 질문에 필자는 그 말에 동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필자는 이 논제를 연구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현대 예배자들이 고전음악의 한 장르인 레퀴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혜를 제안한다. 첫째는 분별력의 지혜이다. 솔로몬이 구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9)라는 바론 분별력의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 여러 작곡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레퀴엠을 가지고 내 생각과 전통의 잣대를 가지고 선불리 불가지론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레퀴엠 찬양의 모범을 잘 판단하여 분별력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로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지혜 즉,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고전 10:23-24) 라는 교훈을 기억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 카톨릭의 예배 전통에서 나온 라틴 텍스트의 레퀴엠이기에 개신교의 전통과는 다르다고 무조건 도외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비록 전통에 근거해 나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음악의 목적에 바른 잣대로 평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대 예배자들이 인생의 삶과 죽음 사이에 갖게 되는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갖는 지혜이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롬 8:11) 복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사는 현대 예배자들은 레퀴엠에 담겨있는 삶과 죽음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확실한 부활 신앙을 발견해야 한다.

D. L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 선생님이 그의 인생 말년 어느 날에 “머잖아 어느날 내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요. 믿지 마십시오. 그 때 나는 그 이전에 어느 때보다 생생히 살아있게 될 것이요.”라고 말하며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 사이에 나타날 상관성에서 느낄 본인의 감정을 이야기했다.

또한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가 1945년 4월 어느 날 두 명의 호송병이 그를 교수대에 데려가려고 오자 감방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이제 나는 끝이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본회퍼가 바라본 이 세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타날 현상은 한치의 의심도없이 또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단언하며 부활 신앙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과 같이 복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한다.

현대 예배자들이 위와 같은 세 가지 지혜(바른 분별력, 서로다름, 확고한 부활 신앙)를 가지고 레퀴엠 장르를 이해하며 묵상하고, 또 그것을 찬양할 때 그 안에서 깊이 미소짓고 있는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찬양을 기뻐 흡족하실 것이다. The End.

연주실황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8BndsQ2FY_k&t=3079s

해설이 있는 연주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a-ppn6lPjoM&t=2280s

iyoon@wmu.edu

단체티 제작 아직도 어려우신가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한번에 해결하세요!

- Step 1: 디자인/견적문의
Step 2: 주문하기
Step 3: 시안확인/수정
Step 4: 상품수령

문의 환영!



어린이 단체티 부터 청장년 단체티까지 전 연령 단체티를 모두 한곳에서 주문 가능

‘히즈핑거몰에서 쉽고빠르게 제작!’

문의: 718-886-4400 / info@chpress.net

Hisfinger / Psalm 8:3

이후와 함께 감사하기

뉴욕그레이트넥교회

담임목사: 양민석

715 Northern Bl.,
Great Neck, NY, 11021

Tel. (516)466-8063

뉴욕동원교회

담임목사: 박희근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Tel. (718)321-9199

뉴욕만나교회

담임목사: 정상철

170-0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Tel. (917)750-8174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917)373-3411

뉴욕선교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수/박병섭

67-02 Woodside Ave.,
Queens, NY 11377

Tel. (718)490-6316
www.lmcony.org

뉴욕성실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석희

45-31 220th Place,
Bayside NY 11361

Tel. (646)641-2247

뉴욕수정교회

담임목사: 황영송

25-67 College Point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461-9800

뉴욕심포니교회

담임목사: 신동기

42-70 156th St.
Queens, NY 11355

Tel. (646)339-0196

뉴저지 열린문 교회

담임목사: 허민수 목사

150 Park Ave.
Leonia, NJ 07605

Tel. (201)944-6747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욕좋은교회

담임목사: 정인수

61-72A 223rd Place #23A
Bayside, NY 11364

Tel. (646)238-4883

뉴욕주은혜장로교회

담임목사: 임병순

46-17 160st #1F
Flushing, NY 11358

Tel. (917)767-9191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광선

42-15 166th St,
Queens, NY 11358

Tel. (718)762-5756
www.hyoshin.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늘기쁜교회

담임목사: 김홍석

61-51 Fresh Meadow Ln,
Fresh Meadows, NY 11365

Tel. (718)359-0691
www.joyfulchurchny.org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Tel. (303)422-695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 (610)222-0691
Fax. (610)222-0692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Tel.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 (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센터빌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차용호

25454 Gum Spring Rd,
Chantilly, VA 20152

Tel. (703)581-9235
www.koreanpcc.org

시애틀임마누엘장로교회

담임목사: 우광필

17800 36th Ave. W.,
Lynnwood, WA. 98037

Tel. (425)510-8526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정승환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45-02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1904

온누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문휘

10 Oak Street,
Orangeburg, NY 10962

Tel. (845)359-1458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주안예교회

담임목사: 임영건

4021 159th St #1,
Flushing, NY 11358

Tel. (631)327-8046

지역교회부흥선교회

대표: 허윤준 목사

Tel. (718)637-147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www.kapcq.org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 (253)536-6675
www.tacomacrc.com

한인동산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삼

100 Herrmann Pl,
Yonkers, NY 10710

Tel. (914)961-9250
www.nydongsan.com